

## 기독교회사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선교 3

“믿음선교(Faith Missions) 운동”의 시작과 혁신적인 세계선교  
미전도지역으로의 복음전파

이미생 교수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에 있어 전례 없는 놀라운 진보를 보임으로써 19세기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가 되게 한 운동이 있다면 허드슨 테일러(1832-1905)의 “믿음선교”(Faith Missions) 운동이 그것이다. “19세기 세계선교에 허드슨 테일러보다 더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없다”(선교학자 Ralph Winter), “사도바울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보다 더 큰 비전을 갖고, 더 넓은 지역을, 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으로 복음전파를 이루어나간 자가 없다”(선교사 교수 Ruth Tucker)는 것이 테일러에 대한 평가이다. 이 믿음선교 운동은 제2차 영적대각성운동의 정점인 1858년의 “위대한 기도부흥(the Great Revival)”과 1873년 부흥에서 선교사들을 확보한다.

믿음선교는 “믿음으로 사는 삶”(Living on Faith), 즉 “기도로 사는 삶”(Living on Prayer)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선교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과 자원문제, 경제위기를 맞이한 21세기의 우리들은 이 믿음선교 운동을 통해 세계선교를 함에 있어 도전받게 된다.

“믿음선교”(Faith Missions) 운동이 탄생된 것은 1865년 영국의 브링톤 해변가에서였다. 1854년에 중국으로 선교갔던 허드슨과 마리아 테일러(James Hudson & Maria Taylor)는 6년 만에 건강으로 인해 영국으로 돌아와 안식년을 갖고 있었지만, 거대한 중국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1854년 당시 3억 8천만). 테일러는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라는 이름의 은행구좌를 약 50불 정도로 열면서 “주님! 저에게 이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24명의 헌신된 동역자와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1866년 중국으로 돌아갈 때 놀랍게도 테일러는 24명과 함께 가지만, 자신을 처음 파송하며 후원을 약속했던 “중국복음선교회”(China Evangelization Society)나 교회, 선

교단체들은 이들을 후원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테일러는 고정적인 후원을 받는 전통적 선교방식 대신에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오직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기로 작정한다. 이것이 바로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19세기 세계선교를 놀랍게 이루어 갔던 믿음선교 운동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God's work done in God's way never lacks God's supply.)는 것이 테일러의 선교원리이다. 51년간의 중국선교를 통해, 테일러는 중국내지선교회를 세웠고, 20개의 선교근거지(stations), 849명의 선교사, 700명의 중국인 사역자를 훈련한다. 믿음으로 4백만 불을 선교비로 받았고, 12만 5천 명의 중국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여호와 이레”는 중국내지선교회의 가장 즐겨 쓰는 구호가 된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전파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10만 명의 선교사를 일으킨 “백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Movement)의 시작도 테일러의 사역에서 영향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실 테일러는 후에 자신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몰러(1805-98)에게서 그의 믿음선교원리의 영감을 받는다. 그의 평생에 다섯 개의 고아원을 지어 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고, 117개의 학교를 건립, 12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한 몰러는 프러시아(현 독일)에서 태어났다. 방탕아였던 몰러가 20세에 거듭나고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자신이 받는 사례비가 “성전의자 좌석비”(pew-rents)로 받는 돈을 알고서 사례비를 거절한다. 그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고, 산업혁명 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고아들을 돌봄에 있어서 사람에게 필요를 알리는 대신 하나님께만 아뢰기로 작정한다. 특

히 그는 마태복음 7:7-8, 6:25-34, 요한복음 14:13-14 등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고자 했다.

따라서 “믿음선교”(Faith Missions)는 세계선교를 함에 있어 교단중심의 전통적인 사역을 벗어나 초교파적인(interdenominational) 성격을 띠며, 특히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지역선교를 목표로 한다. 테일러의 원리와 모델을 따라서 ‘아프리카내지선교회’(Africa Inland Mission), ‘콩고내지선교회’(Congo Inland Mission), ‘미전도지 아프리카선교회’(Unevangelized Africa Mission), ‘미전도종족 선교교회’(Unevangelized Tribes Mission), ‘수단파이오니어선교회’(Sudan Pioneer Mission), ‘모로코 선교교회’(Morocco Mission) 등의 수많은 믿음선교단체들이 생겨났고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초 현재 이 믿음선교회들을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교단선교회 선교사수보다 훨씬 더 많다.

중보기도-성령부흥-세계선교! 전례 없는 19세기의 세계선교는 그 선교사 공급의 힘이 부흥에 있었고, 그 시작과 원동력은 하나님을 선교자원의 공급자로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미생 교수(Dr. Meesaeng Lee Choi, Ph.D.)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서울신학대학원(M.Div.)과 미국 애즈베리신학대학원(Th.M.)을 거쳐 드류대학원에서 역사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 캔터키주, 애즈베리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와 역사신학 교수로 있다.